

김영록 지사, 구례 5일 시장 찾아 민생소통

금융버스 ‘가드림’ 1일 명예 지점장 활동
소상공인 애로 청취 1대1 금융상담 시연

김영록 전남지사는 3일 구례 5일시장에서 금융버스 가드림 1일 명예지점장으로 활동하며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직접 둘러보는 등 민생소통을 이어갔다.

이날 민생소통 행사에는 박정선 전남소상공인연합회장, 한승주 전국상인연합회 전남지회장, 시·군 상인회장, 구례군 소상공인 등 20여명이 함께 참석해 김 지사와 함께 경영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김 지사는 애로사항 청취 후 금융버스 1일 명예지점장으로 소상공인들과 1대1 금융상담 시연에 나섰다. 또한 1대1 금융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이 직면한 내수시장 침체, 고금리 위기에 깊이 공감해, 전남도에서 민생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 추경과 발맞춰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역사랑상품권 3천500억원을 도비로 조기 발행한 데 이어 정부 추경과 연계해 약 8천억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해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로 삼겠다”며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경영하도록 지역 경제 활력회복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상인은 “생업에 종사하느라 보증상담을 받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상담을 받게 돼 다행”이라며 “물가도 갈수록 치솟아 대출받기가 꺼려졌는데 소상공인



전통시장·소상공인 경영 애로 청취를 위한 금융버스 ‘가드림’ 1일 명예지점장으로 위촉된 김영록 전남지사가 3일 구례 5일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어 큰 힘이 된다”고 지속적인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금융버스 가드림’은 전통시장과 금융 소외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 첫 출범 이후 2024년 전남도 도민평가

단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고 행정안전부 지역 금융 협력 모델 집중 관리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외부 기관에서 벤치마킹 차 방문하는 등 선도적인 정책으로 인정받고 있다.

올해는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버스형 이동

점포를 자체 구입해 월 1회에서 주 1-2회로 확대해 6월 말까지 총 20회 운영, 80여명의 보증상담을 진행했다. 가드림 금융버스는 생업이나 이동의 어려움으로 신보 직접 방문이 불편했던 소상공인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다.

/김재정기자

‘NO 플라스틱’ 광주세계양궁대회 친환경 캠페인

유튜브·인스타그램 응원댓글 이벤트

광주시가 오는 9월 열리는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와 ‘광주 2025세계장애인양궁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와 친환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3일부터 23일까지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대회 공식 사회관계망(SNS)

계정(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gwangju_2025)을 통해 ‘친환경 대회 응원 댓글 달기’로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대회 공식 계정을 구독(또는 팔로우)하고 이벤트 게시물에 응원 댓글을 작성한 후 네이버 폼에 제출하면 된다.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텀블러와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

광주시와 세계양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노 플라스틱(NO! Plastic), 예스

(YES) 966’을 핵심 구호로 삼아 30년생 소나무 966그루를 식재하는 효과에 상응하는 탄소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회조직위는 경기장 내 1회용 플라스틱을 최소화하고 종이 홍보물 대신 정보무늬(QR코드) 기반 온라인 홍보물을 적극 활용하는 등 탄소 배출 저감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선수단에는 1회용 생수병 대신 텀블러

와 식수를 제공하고 일반 관람객들이 직접 탄소발자국 줄이기 등 탄소 중립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부스를 운영한다.

전은옥 문화체육실장은 “지속할 수 있는 국제대회를 지향하는 이번 대회가 ‘평화의 울림’뿐만 아니라 ‘친환경의 울림’도 전세계에 전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는 5일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대회 성공 개최를 지원하는 걷기 행사와 양궁 체험 부스가 운영돼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기수회기자

‘우리아이 자립펀드’ 지방특례 적용 건의

도, 지방소멸위기지역 맞춤 지원 요청

전남도는 3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아동자산형성 지원 사업인 ‘우리아이 자립펀드’ 도입에 대비, 지방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특례 적용을 건의했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국가와 부모가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해 18세 이하 아동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새 정부 정책공약이다. 장기적인 자산형성 뿐만 아니라, 교육·주거·결혼 등 사회진

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다.

전남도는 이날 펀드 도입과 관련 ▲지방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국가 납입금 확대 ▲지역 정착 조건 충족 시 납입기간 연장과 이자율 우대 등 특례 적용 ▲저소득층 아동과 다자녀 가구 대상 매칭 비율 확대와 추가 지원 방안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복지부 관련 담당자들과 함께 아동복지 증진과 정책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양육비 부담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인 만큼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아동의 자산 형평성을 높이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전남에서 시행 중인 출생기분수당과 연계한다면 더욱 강력한 정책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도, 고수온·적조 피해 최소화 주력

전남도와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여름철 고수온·적조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부터 피해 복구까지 현장 중심 재난 대응 대책을 추진한다.

올해는 장마 기간이 짧고 폭염이 빠르게 시작됨에 따라 고수온 발생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전남에서는 고수온으로 여수, 고흥 등 10개 시·군 900여가에서 574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도는 지난 4월부터 도내 양식장 3천318개소를 사전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입식 신고와 재해보험 가입도 독려해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뤄지도록 현장 지도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여수 남면 해상에서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민·관·경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 고수온·적조 모의 훈련을 실시, 실천 대응 능력도 한층 강화했다.

향후 고수온·적조 특보가 발령되면 전남도 종합상황실을 즉시 가동하고 피해 우려 해역에는 현장대응반을 배치해 상시 비상대응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14개 시·군에 6개 사업, 462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해 산소공급기, 순환펌프 등 1만1천463대, 액화산소 6천300L, 면역강화제 463L 등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장비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도 때 이른 역대급 폭염에 따른 수온 급등에 대비,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재해 예방 예방 및 질병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양시원기자

市, 치매극복 슬로건·창작시 공모

광주시는 3일 “2025년 치매극복 슬로건·창작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치매 친화적인 지역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치매센터에서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광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치매와 관련된 자유로운 주제로 슬로건(글자수 20자 이내), 창작시(15줄 이내)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이날부터 8월21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 우편, 방문을 통해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치매센터 누리집(gwangju.nid.or.kr)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시상은 부문별로 ▲최우수상 1명(상품권 30만원) ▲우수상 2명(상품권 20만원) ▲장려상 2명(상품권 10만원)이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모 결과는 오는 9월2일 광주시치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시상은 9월18일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에서 진행된다.

/기수회기자

안전한 광주전남

이제, **우리마을** 교통안전은 **차만손**으로

도로를 건널때 **차를 만나면 손을 들어 횡단의사 표시해요**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전라남도 Jeollanamdo

광주경찰청 Gwangju Metropolitan Police

전라남도경찰청 Jeollanamdo Metropolitan Police

광주광역시교육청 Gwangju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전라남도교육청 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

TS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왜, 차만손 운동이 필요한가?

1 고령보행자는 접근차량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로를 건너갈 때는 **차만손** 해요.

2 운전자는 느린 보행의 고령자를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운전자에게 멈추라고 **차만손** 해요.

3 우리나라는 고령자 사고가 아주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고령자 교통안전을 위해 **차만손** 해요.

4 달리는 차를 향해 손을 들면 대부분이 멈춰요.
그래서, 느린 보행의 고령자는 **차만손** 해요.